

98세대 풍경 문학의 인상주의적 특성 연구*

정수현

덕성여자대학교

정수현(2021), 98세대 풍경 문학의 인상주의적 특성 연구,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2(2), 107-128.

초록 본 연구는 98세대 풍경 미학에 나타난 인상주의의 특징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상주의자는 고정된 사물을 묘사하던 전통 미학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자연가운데 캔버스를 두었고, 사물이 빛, 시간, 관찰자의 시각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주체와 자연과의 직접적인 만남에서 탄생한 인상주의는 스페인의 전반적인 예술분야, 교육제도, 사회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예술가는 새로운 점묘법으로 자연의 순간성과 상대성을 표현함으로써 가톨릭에 입각한 절대주의적 세계관에 충격을 주었다. 이 시기의 98세대 자유주의 교육자는 자연탐구, 야외스케치, 문화탐방을 장려함으로써 스페인 국민의 주체적 사고와 실증주의적 관점을 고양시켰다. 또한, 지식인은 보수주의 정치체제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비판적 시민정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은 98세대의 풍경 미학과 인상주의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이에 반영된 전통적 국가관에 대한 위기의식과 근대시민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자유주의 사회상에 대한 필요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핵심어 인상주의, 자유교육원, 98세대, 빛, 야외풍경화

* 본 논문의 주제는 2016년 12월 15일 동계 한국스페인어문학회(고려대학교)에서 <98세대에 나타난 인상주의 미학의 영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I. 서론

유럽 인상주의 미학은 ‘근대성’ 혹은 ‘모더니티(modernity)’ 개념과 함께 탄생하였다. 인상주의 탄생 시기인 19세기 중후반의 유럽은 산업화, 도시화, 개인주의, 그리고 빛과 상대주의 관념의 발달로 커다란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종교관은 세속문화의 유입으로 약화되었고, 왕과 귀족중심의 보수주의체제는 위기를 맞았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자유주의 시민의식이 형성되던 시기였다. 인식론적인 측면에서는 절대주의에서 상대주의로, 객관주의에서 주관주의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종교, 정치, 사회, 예술 분야에서 전통적인 세계관과의 단절을 꾀하였으며, 시민중심의 민주주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좀 더 인본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유럽 예술에서 인상주의 시대는 비평가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공식적인 시기로는 모네의 「인상-해돋이」가 전시된 1874년부터 여덟 번째 인상주의 전시회인 1886년까지로 알려져 있다. 인상주의 탄생을 알렸던 모네의 「인상-해돋이」는 세계가 불변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이고 역동적이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예술이란 객관적인 대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닌, 화가의 주관적인 관점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예술의 목적이란 대상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자의 미완성된 인상의 연속을 나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크레팔디 2009, 68).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인상주의 미학은 점차 새로운 시대의식을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재평가를 받아왔으며, 19세기 말까지 유럽 전역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889년 프랑스 혁명 1백주년을 기념하며, 인상주의는 미술 역사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1880년 중반 이후 프랑스를 넘어 서유럽으로 전파되었고, 이후 일본과 한국까지 그 영향력이 확장되는 등 국제적인 회화양식이 되었다(홍석기 2010, 299).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인상주의 미학은 또 다른 주제의식을 갖고 시대정신을 반영했다. 즉, 산업화된 도시에 거주하는 현대인의 심리를 대변해 주기 시작한 것이다. 초기 인상주의가 일깨워 준 자연의 순간성이라는 개념은 전통과 절대성을 부인하도록 유인했는가 하면, 동시

에 현대인의 정신세계에 잃어버린 이데아에 대한 위기감을 형성시켰다. 19세기 말 유럽 도시인은 순간적인 세계에 대한 불안과 사라져갈 물질문명에 대한 한계의식을 표출한다(하우저 1974, 268). 인상주의는 20세기 초반까지 실존적인 철학이 가미되어 외부현실에 대한 순간적인 인상 뿐 아닌, 복잡한 근대인의 내면을 표현하는 후기 인상주의로 진화하며 존속하였다.

이와 같은 인상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스페인 인상주의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스페인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의 스페인 문인과 화가는 공통적으로 풍경이라는 장르를 도입하여 근대적 국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표현하였다. 구체적으로, ‘야외 풍경화(pintura al aire libre)’라는 새로운 풍경 미학을 통해 국가재건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 인상주의가 유럽 전역에 영향을 끼친 시기를 고려하여, 98세대 국가재건주의 운동과 스페인 인상주의의 발전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II. 스페인 자유교육원과 야외풍경화 탄생 배경.

아놀드 하우스는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에서 예술과 역사는 서로 변증법적인 영향관계에 있다는 논리로 작품을 해석한다. 이와 같은 논리를 발전시켜서, 홍석기는 『인상주의: 모더니티의 정치사회학』에서 인상주의 미학과 정치사회학적 현상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인상주의 회화는 화가가 최초로 화실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개인의 개성과 자유가 강조된 예술의 흐름은 당시 프랑스 혁명을 잇는 1848년 2월 혁명, 1871년 파리 코뮌(사회주의적 자치정부), 보수왕당파를 위협하는 자유주의 운동, 새로운 부르주와 계급과 시민계급의 탄생 등과 같은 일련의 정치 자유주의 사건들과 동일한 선상에 있었다고 분석한다. 또한, 이 시기를 거치는 동안 예술의 주제는 종교, 신화, 왕, 궁정에서 벗어나 대중, 광장, 대도시, 부르주아의 일상생활로 옮겨졌다고 지적한다(2010, 50-2). 더 나아가 제임스 H. 루빈은 『인상주의와 근대풍경(Impressionism and the Modern Landscape)』에서 인상주의를 일

컬어 ‘근대화의 시대(moment of modernity)’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예술로 정의하며 정치 사회적 현상 뿐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기술 혁명, 생산 활동의 변화, 대도시화와 같은 경제적 현상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적한다.

비슷한 시기에 스페인도 절대주의 왕권에서 자유 공화주의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예술가는 전통적인 가치체계에서 벗어나고자 합리주의와 인본주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대표적으로, 스페인 근대 자유주의 시민의식은 1876년에 설립된 자유교육원(Institución Libre de Enseñanza)에 의해 대중에게 확산되었다. 이 기관은 1865년 전통주의 마드리드 대학에서 추방된 산스 델 리오(Sanz del Río), 에밀리오 카스텔라르(Emilio Castelar), 프란시스코 히네르 데 로스 리오스(Francisco Giner de los Ríos)와 그의 제자들이 모여 설립하였다. 자유교육원을 통해 당시 지식인들은 크라우제 철학, 칸트주의 등 지적 사고력을 장려하는 독일 관념주의를 받아들였다. 다른 한편으로, 프랑스 실증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를 흡수하여 사회개혁운동을 실천하였다. 이 시기의 많은 지식인들은 왕정주의에 의해 추방되었다가 제1공화정이 설립된 1873년에 귀국하였고, 1875년 보수정권의 복귀로 다시 추방되었다. 마침내 1876년 자유주의 운동이 어느 정도 인정되던 시기에 자유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었다. 이들은 국왕의 영향권 아래 있던 보수주의 대학체제에서 벗어나, 잡지나 일간지 등을 통해 새로운 교육, 철학, 과학, 예술의 체계를 대중 가운데 보급시켰다. 특히 자유교육원의 새로운 면모는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자연탐구와 문화탐방 등 체험학습을 권장하였고, 권위적이었던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주체의 자유로운 경험, 관찰, 사고가 강조된 인본적인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실증주의 영향을 받은 자유교육원 내부에는 학습자의 직접적인 체험을 강조한 견학, 답사, 야외스케치 등이 주요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스페인 야외풍경화(pinturas al aire libre)의 발달과정과 민족의식의 근대화간의 연관성을 추적해 볼 수 있다. 야외풍경화는 학습자의 자발성, 경험적 체험, 그리고 주관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국민

의식의 탈종교화, 즉 근대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이 시기의 스페인 야외풍경화는 당시 유럽 인상주의가 보편적으로 추구했던 자연, 대기의 변화, 빛의 순간성의 개념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대화의 과정에서 경험했던 또 다른 종류의 순간성의 개념을 소개한다. 즉 자연의 풍경 뿐 아니라 도시의 풍경에도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차, 전차, 가스등, 카메라의 발명이 초래한 가속화된 도시 풍경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시간, 속도, 빛에 대한 경험이기에 때문이다. 이처럼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 현상과 산업화의 발전 양상에 주목한 인상주의 미학은 경험주의에 입각한 세속화를 의미했으며, 전통적인 관점과의 단절을 암시하며 근대화의 탄생을 선언하는 미학이 되었다.

현대 비평가는 인상주의가 새로운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배경 가운데 탄생했으며, 또한 인상주의 운동의 본질은 전통적 가치체계와 절대주의를 부정한 데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인상주의가 추구했던 새로운 양식과 취향은 예술을 넘어선 적극적인 정치적 행동주의의 발현이었다고 평가한다(홍석기 2010, 91).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스페인 자유교육원과 함께 발달한 야외풍경화가 제시하는 사회적, 역사적 의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자국의 풍경을 새로운 관점으로 구성하고자 했던 98세대의 풍경미학을 통해 당시 스페인 지식인이 추구하고자 했던 근대화의 정의 및 의미를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스페인 인상주의 회화에 나타난 국가재건주의 담론.

자유교육원의 설립자 히네르는 1886년 「풍경 Paisaje」라는 글에서 ‘지리학적인 미학(Estética geológica)’이라는 새로운 예술론을 소개한다. 예술과 지리학의 접목을 시도하였고, 지형학에 기반을 둔 미학을 세웠다. 예술가가 작품을 통해 스페인의 문제점을 실증주의적인 시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며 토론할 수 있도록 유도한 미학운동이었다. 히네르의 글은 안토니오 마차도, 아소린, 우나무노, 피오 바로하와 같은 98세대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런 과정에서, 문학

안에 풍경이라는 장르가 정착하게 되었다. 안토니오 마차도의 『카스티야의 들 Campos de Castilla』, 아소린의 『카스티야 Castilla』와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그려진 스페인 풍경 El paisaje de España pintado por los españoles』, 우나무노의 『스페인 여행과 비전 Andanzas y visiones españolas』, 피오 바로하의 『완성을 향한 길 Camino de perfección』 등은 98세대의 국가적 담론을 풍경미학으로 풀어낸 작품들이다.

이처럼 19세기 말 스페인에는 풍경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부각되었으며, 문학, 회화, 지리학 사이에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카를로스 데 하에스(Carlos de Haes)는 지리학자이자 화가로서 98세대 풍경미학에 영감을 주었다. 아우렐리아노 데 베루에테(Aureliano de Beruete)¹⁾는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로서 마차도와 아소린과 함께 국가재건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나아가 98세대 화가로 알려진 다리오 데 레고요(Darío de Regoyos)²⁾는 프랑스 인상주의를 비로소 스페인적인 인상주의로 발전시켜, 민족적 개성과 비극적 고통의 감정을 『검은 스페인 España Negra』이라는 작품을 통해 표현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98세대 작가와 화가들이 공유했던 미학적 철학과 국가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이 시기의 인상주의와 함께 발달한 근대정신(modernidad)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시작한 근대 예술가는 사물이 빛과 시간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에 새로운 관심을 보인다. 예술가의 관심은 더 이상 고정된 사물이 아니었다. 그의 관심은 보이지 않는 빛의 역동적 움직임으로 옮겨졌으며, 이와 함께 사물과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큰 변화

1) 베루에테의 인상주의에 대한 논문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Puente, Joaquín de la(1983), “Beruete, impresionista, rigor vidente, retina excepcional”, *Aureliano de Beruete y Moret 1845-1912*, Madrid: Exposición Organizada por la Obra Cultura de la Caja Pensiones, pp.25-31.

2) 엘리야노 투프츠(Eleanor Tufts)는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의 인상주의 형성과정 The Lure of Impressionism in Spain and Latin America」에서 카를로스 데 하에스를 인상주의 선구자로 평가하며, 베루에테, 레고요, 그리고 소로야를 대표적인 스페인 3대 인상주의자로 간주한다(1994, 220). 본 연구에서는 하에스, 베루에테, 레고요의 인상주의만 간단하게 소개한다.

를 보여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프란시스코 칼보 세라예르(Francisco Calvo Serraller)는 빛을 근대 회화의 주된 요소라고 말한다. 근대 미학(modern beauty)을 결정짓는 특징은 “예측할 수 없고, 변화무쌍하며, 순간적인 것(unexpected, changeable, fleeting)”, 즉 “소멸의 미(mortal beauty)”라고 정의한다(1984, 19). 이후 보들레르의 시학과 모더니즘 미학에는 카메라 효과를 연상시키는 기법을 통해 부르주와의 일회성, 순간성, 존재적 허무감을 더욱 부각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순간성을 강조한 모더니즘 및 이후의 예술은 빛에 주목하기 시작한 인상주의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스페인의 경우, 카를로스 데 하에스(Carlos de Haes)의 작품<피에드라 수도원의 십자가 La cruz, Monasterio de Piedra>와 <부서지는 파도 Rompimiento>(도록 1,2), 그리고 아우렐리아노 데 베루에테(Aureliano de Beruete)의 <그린델발트 Grindelwald>, <강에 반사된 만사나르 마을 Manzanares bajo el puente de los franceses>(도록 3,4), 다리오 데 레고요의 <알메리아 해변 La playa de Almería>, <가스등 Luz de gaz>, <빛의 효과 Efecto de luz>, <카스티야의 전등 Luz eléctrica en Castilla>³⁾ 등과 같은 회화 작품에서 빛의 반사, 변화, 소멸 등에 대한 주제를 관찰할 수 있다(도록 5-8).

서양미술사에 있어서 인상주의 미학은 화가의 이젤을 화실에서 실외로 옮기면서 사고의 범위를 확장시켰고, 비주류에 있던 풍경화를 주요 장르로 전환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무엇보다 빛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자연의 상대성을 표현함으로써, 종교에 입각한 절대주의적 세계관을 부인하도록 유도했다. 빛과 시간에 대한 상대주의적 관념은 근대정신의 기틀을 마련해주었으며, 이후 모더니즘 및 아방가르드 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

둘째, 유럽 인상주의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 안에서 탄생, 발전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김홍순은 19세기말 가스등, 전차, 고가철도, 전신, 철골

3) 다리오 데 레고요의 작품이 지닌 근대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Valdés Fernández, Manuel (2004), “Darío de Regoyos y la pintura europea en la crisis de 1900,” *De Arte*, 3, pp. 165-186.

건물, 공장 등 다양한 근대적 시설물이 대거 등장하면서, 시민의 일상과 가치관이 변화했다고 지적한다. 인상주의 회화가 이러한 산업화의 과정 및 변화하는 시민문화와 대중의 생활양식을 포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상주의가 갖는 사실주의적 측면과 근대정신을 분석한다(2010, 203-210). 대표적으로, 모네의 <생 라자르의 철도역>은 도시의 변화, 생산력, 새로운 시대정신을 소개하였다(도록 9). 이와 비슷하게, 19세기말 스페인 화가도 산업혁명이 초래한 도시형태의 변화를 생동적으로 묘사한다. 특히, 베루에테와 함께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로 꼽히는 다리오 데 레고요(Dario de Regoyos, 1875-1913)는 모네와 유사하게 증기 기관차의 등장을 기념한다(도록 10). 근대화의 상징인 전차, 공장, 시계, 가스등, 획일화된 대중의 모습도 묘사한다. 나아가 도시화에 따라 익명화되어가는 군중의 내면적 고독과 상실감이 느껴지는 작품도 눈에 띈다(도록 11,12).

흥미롭게도 레고요 데 레고요의 유명한 작품 <카스티야의 성 금요일>은 근대화를 상징하는 기차와 스페인 전통을 상징하는 가톨릭 수도사의 엄숙한 행렬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어 또 다른 면을 시사해 주고 있다(도록 13). 계몽주의 이후 본격화된 유럽근대화와 전통주의의 갈등을 대변하는 ‘두 개의 스페인(Dos Españas)’에 대한 고뇌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레고요는 자신의 미학을 소개할 때, 유럽 인상주의와 스페인 전통주의 기법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코예요, 고야, 벨라스케스, 엘그레코와 같은 스페인 전통 화가들과 동시에 마네, 모네, 르느와르와 같은 동시대 프랑스인상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The old masters whose work most pleased me are Sánchez Coello, Goya, Velázquez, and El Greco. As for my own times, I adore Corot, Manet, Monet, Renoir, and the impressionistic harmonies”(Tufts 1994, 231).

실제로 스페인 인상주의 작품들 가운데 고야, 벨라스케스, 엘그레코의 특징이 보이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 아니었다. 19세기말 국가 위기를 겪으면서, 스페인 예술가는 풍경을 통해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표현하고자 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근대로 가는 격동기를 거치면서 경험했던 유럽 문화와 스페인 전통 문화 간의 갈등 및 조화의 필요성을 암시했다. 또한, 국가적 재앙 앞에서 프랑스 인상주의의 밝은 빛과 스페인 전통 화가의 어두운 색채를 대비시켜, 빛과 어두움의 아이러니를 통해 국가의 비극과 극복에의 의지를 동시에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로 레고요는 98세대 국가재건운동, 야외풍경화, 답사 문화운동(excursionismo)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대표적으로 1898년에는 98세대 특유의 비극적 정서와 극복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검은 스페인 *España Negra*』(도록 14)을 발표하였다. 『검은 스페인 *España Negra*』은 자유교육원의 정신에 따라 작가가 직접 국토여행을 하면서 각 지방의 잃어버린 풍습, 전설, 전통문화를 수집하여 삽화와 시로 엮은 것이다. 작품 안에는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향수와 근대로 나아가야 하는 갈등이 나타난다. 또한 어두운 색채와 죽음의 이미지가 강조되는데, 이는 국가의 패망을 알리는 비극적 시각을 표현하는 것이며, 동시에 스페인 가톨릭 전통에 내재된 영원과 초월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역설적 소망, 민족적 전통의 견고함 등을 재확인하려는 의미를 갖는다.

IV. 98세대 풍경 문학에 나타난 인상주의

하우저는 인상주의가 자연주의 미학에서 출발했다고 지적한다.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지리학자는 자연이 성장, 소멸, 생성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바로 빛과 시간의 움직임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1859년에 발표한 다윈의 『종의 기원』과 진화론도 인상주의 미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우주는 신의 창조에 의해 일시적으로 완성된 것이 아닌, 물리적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며, 모든 생명체는 독립된 객체가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며 서로 변화, 진화해 간다는 이론은 종교, 정치, 학문, 예술 분야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따라서 자연은 믿어야 하는 절대적인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탐구되어야 하는 열린 학습장으로 변모한 것이다. 이후 다윈을 비롯한 지리학자는 탐험, 여행, 학습일지, 스케치 등을 동원해 자연의 비밀에 접근해 갔다. 이

와 같은 경험주의적 방법론이 인상주의 야외풍경화에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화가는 자신의 캔버스를 실내에서 야외로 옮겼으며, 불변하고 정의할 수 있는 자연이 아닌,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상 자체에 주목하였다. 동시에 완성을 위한 묘사법이 아닌, 변화의 과정을 담은 미완성의 터치 기법에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

자유주의 지식인 히네르는 1886년 「풍경 Paisaje」라는 글에서 훔볼트(Humboldt)와 쿠베르(Cuvier)를 계승한 근대과학정신에 입각하여, 문학 내에 ‘지리학적 미학(Estética geológica)’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1897년 아소린은 히네르와 비슷하게 「풍경들 Paisajes」라는 글을 발표했다. 프랑스 인상주의자와 흡사하게, 빛과 자연의 다채로운 변화에 주목하고 있었다.⁴⁾ 아소린은 “나의 일과는 한결 같았다. 나는 긴 독백 속에서 풍경, 빛의 효과, 해질녘을 응시하며 끝도 모를 사색에 잠겼다. 이처럼 자연은 내 삶의 열정이 되었다”(1897, 69).라고 말하였다.

아소린의 또 다른 글, 「순간과 감각 El momento y la sensación」은 인상주의 미학이 스페인에 소개되던 시기와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프랑스 인상주의가 1880년 중반이후 유럽각지에 확산되면서 국제적인 양식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다면, 스페인에서는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그 유행의 결실을 보았던 것 같다. 아소린은 「순간과 감각」에서 1898년에서 1910년 사이에 스페인 회화 역사상 새로운 변혁이 일어났다고 지적하며, 인상주의의 혁신적인 역할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898년에서 1910년까지, 대략 12년 사이의 스페인 예술을 주시해 보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것이 감지되고 있습니다”(1988, 177). 아소린은 유럽의 인상주의자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법칙에 매료되어, 대기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재빠른 터치로 캔버스에 포착했다고 설명한다. 인상주의 미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4) 아소린의 문학작품과 인상주의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Embeita, María(1973), “El impresionismo como visión filosófica de La Voluntad de Martínez Ruiz”, *BOLETIN AEPE*, N° 9, Centro Virtual Cervantes.

그들은(프랑스 인상주의자들) 자연의 무한한 변화에 매료되어 재빠른 터치로 대기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포착했다.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들은 자연의 소멸하는 속성, 사라져가는 인상을 그리는 예술가들이다. 아마 풍경 예술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차원의 미학을 좇는 예술가들이다. 또한 가장 해석하기 난해한 미학이기도 하다.(Azorín 1988, 177)

또한, 1901년 보수적인 국립미술관이 인상주의 미학을 거부했던 상황을 설명하며, 당시 스페인 보수주의 예술가와 일반 대중이 느꼈던 거리감을 말해준다. 이에 반해 아소린을 포함한 다수의 예술가는 새로운 예술 운동에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순간은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가 문학과 예술에 답을 수 있는 것은 감각뿐이다. 일반 사람이 우리가 화폭 앞에서 느낀 것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중요한 것은 현대 예술가들이 느낀 것을 감지해 보는 것이고, 그 감각에 새로운 형태의 미학을 부여하는 것이다.(1988, 177)

이처럼 아소린은 히네르가 제시한 ‘지리학적 미학’, 즉 풍경미학을 발전시켰으며, 당시 인상주의 화풍이 소개한 주관주의적 관점으로 스페인 풍경을 새롭게 바라보았다. 개인의 주관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을 부각시킨 근대적 풍경미학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다. 풍경과 근대적 비판정신의 연관성은 지리학자이자 교육 철학자인 『에밀』의 저자 루소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다. 아소린은 루소를 근대 문학에 자연이란 주제를 소개한 창시자라고 소개한다. 루소 이전의 인간은 자연을 공포와 미지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반면 루소 이후부터, 자연은 친근한 대상으로 바뀌고 인간은 자연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주체적인 학습자로 발전한다. 아소린의 분석에 의하면, 이후 19세기 과학, 산업,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인간은 자연에 더욱 쉽게 접근하게 되었고, 적극적인 주인의식과 탐구정신을 키웠다. 이와 함께,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난 근대정신을 가진 새로운 문학이 탄생하게 되었다(Azorín 1923, 19).

히네르의 제자이자 자유교육원의 일원이었던 안토니오 마차도⁵⁾ 역시 자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시인이 “모든 것은 움직이고, 이동하고 변한다.

바다도, 산도,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변한다(Todo se mueve, fluye, cambia la mar, el monte y el ojo que mira)”(Machado 1989, 104).라고 말했듯이, 당시의 인상주의 풍경에 대한 인식과 상대주의적 세계관을 공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

대표적으로 1911년 마차도의 시 「구아다라마 산맥(Guadarrama)」에는 한낮의 햇빛아래 다채롭게 변화하는 카스티야 풍경을 묘사했다. 구아다라마 산맥은 히네르가 “스페인의 척추(espina dorsal de España)”(Giner 1965, 41).라고 표현할 정도로, 98세대 화가와 문인에게 민족적 근원을 상징하는 자부심이기도 했다. 이 시에서 마차도는 카스티야 국토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와 ‘카스티야’ 사이에 친밀한 대화를 시도한다. 자연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 보다, 시인의 친밀한 시선을 통해 시시각각 세밀하게 변화하는 산맥 곳곳을 찾아가며 숨어있는 스페인 국토의 본질을 찾고자하는 내면의 열정을 표현한다. 시인은 의도적으로 화가가 되어 하늘을 화폭삼아 산맥 정상의 설경, 빛에 의해 반사되는 색채감, 태양의 움직임, 빛에 따라 수 천 가지 모습으로 변화하는 풍경을 묘사한다.

구아다라마, 나의 오랜 친구여,
마드리드 오후 햇살이 빛날 때마다
나는 푸른 캔버스 바탕에
하얀 잿빛으로 그려진 너를 바라보곤 했다.
너의 깊은 절벽을 따라,
때론, 그 험한 정상에까지,
태양은 천개의 빛을 발산하며 너를 쫓는다.
그때마다 천개의 모습으로 변하는 너, 구아다라마.
그 빛들과 함께, 나도 너의 숨겨진 본질을 추적하고 싶다.(1989, 120)

-
- 5) 마차도와 자유교육기관과의 연관성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Vila-Belda, Reyes(2006), “La visión institucionista del paisaje en Antonio Machado”, *Hoy es siempre todavía*. Curso Internacional sobre Antonio Machado, Sevilla: Renacimiento, pp.198-229.
- 6) 마차도 작품에 나타난 인상주의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Vila-Belda, Reyes(2003), “Paisajismo e impresionismo en Campos de Castilla, de Antonio Machado”, *Revista Canadiense de Estudios Hispánicos*, Vol. 28, No.1, Otoño, pp. 281-295.

98세대를 대표하는 또 다른 작가 피오 바로하(Pío Baroja)의 1902년 소설 『완성을 향한 길 *Camino de perfección*』에도 회화적인 요소와 빛에 대한 관심이 자주 발견된다. 화가 지망생 주인공 페르난도는 “빛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풍경 (Con los cambios de luz, el paisaje se transforma)”(Baroja 1920, 71)을 묘사한다. 소설 곳곳에서 빛에 의해 다채롭게 반사되는 카스티야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태양 빛으로 붉게 변하는 흰 구름(nubes fundidas por el sol al rojo blanco)”(67), “어두운 녹색(verdiosa)”(117), “노랗게 물든 초록빛(verdiazulada)”(117), “보라 빛의 푸른색(azul violáceo)”(53), “푸르른 흰빛(blancoazulado)”(169), “푸른 하늘이 눈부신 백색으로 물들다(el cielo azul blanquecino luminoso)”(85)와 같은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풍경의 색채가 빛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표현한다. 바로하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98세대 화가 다리오 데 레고요와 유사하게 국가적 위기의식을 반영하였다. 즉, 자연이 화가의 주관적 시각에 영향을 받는다는 인상주의 철학을 발전시켜, 작가는 국가에 대한 암울한 시각을 작품에 투영하였다. 바로하의 빛과 색채는 엘그레코의 종말적인 시각을 자주 연상시키며, 스페인의 어두운 현실을 표현한다.⁷⁾ “페르난도는 강렬한 빛으로 인해 고통스러웠고 그의 시야는 혼탁해졌다. 눈을 깜박거리며 간신히 주변을 바라보았다. 그가 마주한 풍경은 형벌의 공간과 같았다. 마치 지옥에서 발산되는 빛이 주변을 통째로 태울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었다(Fernando, con los ojos doloridos y turbados por la luz, miraba entornados los párpados. Le parecía el paisaje un lugar de suplicio, quemado por un sol de infierno)”(88).

다른 한편으로, 인상주의의 탄생 배경인 기술혁명, 산업화, 도시화의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98세대 문학에는 근대화를 대표하는 새로운 교통수단, 도로, 여행, 산책 등이 새로운 소재 혹은 주제로 등장한다. 기차역, 기계 소리를 표현하는 의성어, 역동적인 도시의 움직임, 공장의 연기, 가속화 된 도시생활의 순간

7) 98세대 풍경미학과 엘그레코와의 연관성에 대한 논문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Pilar Paloma, María del(1994), “El Greco: modernismo y 98”, *Literatura Española de Los Siglos XIX y XX: Homenaje a Alonso Zamora Vicente*, Madrid: Editorial Castalia, pp. 275-286.

성이 새로운 미학적 가치를 획득하였다. 아소린의 작품『카스티야 *Castilla*』는 기차의 속도감, 도시 가스등의 불빛, 급속한 근대화의 과정을 바라보는 여행객의 관찰자적 시선을 담고 있다. 『카스티야 *Castilla*』에 수록된 「철도 *Los ferrocarriles*」에서 작가는 “기차역은 한 편의 시와 같습니다. 기차가 느리게 정차할 때 막 도착한 여행객은 작은 빛이 반짝거리는 광경을 바라봅니다. 사라질 듯 다시 빛나고, 그리고 마침내 영원히 사라져 가는 작은 빛을 바라보게 됩니다”(1973, 107).라며 근대화의 속도감, 순간성, 허무함을 미학적으로 표현한다.

19세기의 예술가는 근대산업화의 과정을 관찰하였다. 빛의 순간성과 함께 새로운 과학문명이 가져다준 속도감은 또 다른 미학적 가치를 획득한 것이다. 릴리 리트박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까지의 회화와 문학을 ‘기차의 시대’에 속한 예술이라고 분류하기도 했다. 현대 예술이 반영하는 기계문명과 속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차의 속력은 사물이 언제나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우리는 사물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 우리 눈앞엔 오직 ‘소멸의 풍경’ 자체만 있을 뿐이다(*la velocidad del tren hace percibir la sucesión de vistas tan rápidas como siempre cambiantes muecas cuya síntesis es un paisaje evanescente*)”(Litvak 1991, 213). 인상주의자의 산업화에 대한 관심은 이후 20세기 초의 미래주의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미래주의자는 자동차의 속력, 공장의 소음, 대도시의 속도감과 역동성을 더욱 급진적인 예술 형태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산업화의 침투가 언제나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19세기 예술가는 합리주의, 과학의 확산, 근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대도시의 성장과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위협과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과거의 향수를 좇아 지방이나 시골로 여행하는 도시인의 모습도 인상주의 회화나 문학에 자주 등장한다. 아소린은 『카스티야』의 「기차 *Los ferrocarriles*」에서 전 세계가 기차, 자동차, 철도시설, 잠수함, 비행기 등으로 하나로 연결될 뿐 아니라, 이러한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삶은 오히려 더욱 복잡하고 소외될 것이라고 예언한다(1973, 143). 안토니오 마차도 역시 「기차 *En tren*」라는 시에서

기차의 속도와 소음을 위협적으로 묘사하였다. 시인은 폐병환자의 기침소리와 기차의 소음을 초현실적으로 연상시키어, 가속화된 시간이 내포하는 파괴성과 현대인의 존재적 위기감을 표현하였다. “기차는 걷고 또 걷는다. 기계가 거친 숨을 내쉬며 성난 기침을 내뿜는다. 우리는 찰나에 지나간다.(El tren camina y camina,/ y la máquina resuella, y tose con tos ferina./ ¡Vamos en una centella!)” (1989, 131).

홍석기는 인상주의가 ‘근대화’, ‘도시화’와 함께 발달한 예술이면서, 동시에 대도시 안에서 느끼는 ‘도시인의 고독한 심리상태’가 이에 수반되는 또 다른 특징이라고 지적한다(2010, 212). 특히, 후기 인상주의로 갈수록, 다수의 인상주의 작품에는 도시인의 내적 고독이 표현되고 있으며, 화가의 사회심리학적 해석이 작품 안에 반영되었다고 지적한다(219). 따라서 풍경, 산책, 여행을 담은 인상주의 작품 안에는 관찰자, 산책하는 사색인, 고뇌하는 지식인의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1898년 국가의 패망과 유럽의 세기말적 분위기를 다룬 아소린의 『어느 환자의 일기 *El Diario de un enfermo, 1901*』는 이러한 지식인의 여행 이야기를 다루었다. 주인공은 “모든 것은 빠르고, 허망하며, 순간적으로 사라진다 (todo es rápido, fugaz, momentáneo)”(2000, 178).라고 느끼며, 대도시의 탐욕과 물질주의를 견디지 못하고 존재적 본질을 회복하고자 스페인에서 가장 전통적인 도시인 톨레도로 여행을 떠난다. “현대 산업주의, 이윤에 대한 탐욕, 철도 회사의 집단적 착취 등..... 나는 인류 문명이 초래한 비인간적인 분위기에 숨이 막힐 것만 같다. 나는 마드리드를 떠나 톨레도로 떠난다”(2000, 178). 또한, “어떻게 수 천 개의 색채, 끝없이 변화하는 사물의 모습을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본질’을 발견한 수 있는가? 혹시 우리의 세계는 환영에 불과한 것인가? 혹시 우리도 순간적으로 존재하다 ‘무’로 사라져버리는 환영에 불과한 것인가?”(2000, 190).라며 순간적인 물질세계에서 본질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잃어버린 이데아에 대한 현대인의 상실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유사하게 아소린의 『카스티야』에 수록된 「구름들 *Las nubes*」이란 단편소설은 인상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구름이란 소재를 통해 순간성과 영원성 사

이에서 갈등하는 현대인의 정신을 담아내고 있다.

구름들은 우리에게 유한성과 영원성을 느끼게 합니다. 구름은 바다와 같습니다. 언제나 변화함과 동시에 언제나 동일합니다. 구름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존재와 모든 사물이 ‘무’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순간적이기도 하고 영원하기도 한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은 시간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 시간을 느끼는 이의 정서보다 더 비극적인 것이 또 있을까요? (1973, 136-7)

흥미롭게도 하우저는 인상주의의 ‘빛’, ‘순간성’, ‘시간’이란 주제가 19세기말 베르그송의 철학과 결합했다고 분석한다. 이후 푸르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와 같은 존재적, 심리적인 작품을 탄생시켰다고 말한다. 즉, 초기 인상주의가 시간이 소유한 물리적인 분해와 파괴의 원칙에 주목했다면, 후기 인상주의는 시간에 존재론적인 의미와 인식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즉, 흐르는 시간을 명상하는 가운데, 존재적 실체나 삶의 본질을 포착하려는 내적 의지가 동시에 발전했다고 말한다(1974, 268). 인상주의 직후 상징주의가 확산된 것도 바로 시간에 대한 명상이 좀 더 심리적인 경향을 띄며 발전한 것이다(1974, 248). 98세대의 미학에도 비슷한 흐름이 발견된다. 아소린은 빛과 시간의 이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이미지를 묘사하면서, 역설적으로 종교적 초월성을 또 다시 갈구하는 현대인의 이중성을 표현한다.

산업화가 발달한 19세기 후반의 유럽 예술은 삶의 순간성을 다룬 동시에 잃어버린 영원성에 대한 갈망을 표출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모순된 측면은 스페인 98세대 작품에서 더욱 독특하게 표현된다. 1898년 국가적 재앙을 경험한 스페인 지식인은 전통과 종교적 권위에서 벗어나 유럽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면서도, 과거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한 측면을 보인다. 98세대 작품에는 유럽주의와 전통주의, 실증주의 세계관과 가톨릭 세계관 사이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양 극단 사이에서 갈등하는 지식인의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보편적인 현상으로, 19세기말 유럽 전체가 종교적 절대성을 거부한 뒤 찾아오는 허무주의 혹은 세기말적 정서를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후기로

갈수록, 유럽 인상주의 작품 가운데에는 이데아를 잃은 현대 도시인의 예민한 정신세계가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스페인 예술가도 근대화를 설계하는 과정 가운데 겪었던 현대인의 갈등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98세대가 겪었던 국가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본 논문은 스페인 인상주의를 근대화의 발달과정 속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인상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98세대 풍경에서 모더니티의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우선, 98세대 풍경에는 자연에 대한 탐구, 자연현상에 대한 탈신비화의 관점, 이성과 과학의 우위성이라는 근대철학이 반영되어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유럽 인상주의가 절대왕권주의에 대립되는 자유주의 정치이념을 지지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98세대 작가들이 가톨릭 왕권체제에 대항하여 자유주의 공화체제를 지지했던 상황과 유사한 부분이었다. 특히, 1876년 98세대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히네르가 세운 자유교육원의 인본주의 정신과 풍경미학이 갖는 의미를 풀어 보았다. 전통과 근대가 서로 충돌하는 시기에 탄생한 인상주의와 98세대의 풍경미학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었다. 변화하는 자연현상에 대한 관심, 가스등, 기차, 철도 등 기술혁명이 가져다준 미학적 변화, 산업화로 인해 변하는 일상생활이 소개된다. 다른 한편으로, 도시화의 또 다른 측면도 부각되었다. 실증주의 세계관의 한계를 인식한 도시인의 고독과 세기말적 정서가 부각된 부분이다. 인상주의의 발달과정에서, 변화하는 근대화 앞에서 갈등하는 유럽 지식인의 허무주의적 정신세계가 노출되었듯이, 스페인 98세대 역시 세속화의 과정 앞에서 물질문명의 순간성과 잃어버린 영원성 사이에서 고뇌하는 내면세계를 표현한다.

V. 결론

98세대 작가는 문학에 풍경이라는 장르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자유주의 사상을 대표하는 히네르 데 로스 리오스(Giner de los Ríos)가 1886년에 「풍경 Paisaje」이란 글을 발표하면서 더욱 공식화되었다. 이후 98세대 작가와 화가는

풍경을 통해 스페인 민족성을 재발견하자는 의견을 공유하였고 예술을 통한 국가재건운동에 동참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는 19세기 말에 프랑스 인상주의의 영향이 전 유럽에 확산되었던 점에 주목하여, 스페인의 인상주의 미학과 98세대의 근대정신의 연관성을 보고자 하였다. 19세기 산업화가 야기한 다양한 변화, 야외스케치가 의미하는 주체와 자연과의 직접적인 만남, 빛의 발견과 함께 형성된 상대주의 관점 등이 유럽 전체의 근대 미학의 철학적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98세대의 풍경을 연구할 때, 인상주의 미학만을 언급할 수는 없다. 인상주의에서 변형된 후기 인상주의, 상징주의 등 다른 미학적 특징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98세대 예술가는 카스티야 풍경을 통해 민족성을 부각시키고자, 프랑스 인상주의와는 구별되는 색채를 찾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대표적 스페인 전통 화가인 엘그레코, 벨라스케스, 고야의 빛의 기법을 현대에 맞게 재구성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98세대의 풍경은 인상주의의 밝은 빛 뿐 아니라, 위의 스페인 전통 화가들의 어두운 색채를 도입하였다(도록 15, 16).⁸⁾ 98세대 풍경에 나타난 빛과 어두움의 대립과 조화는 삶의 순간성과 죽음을 초월한 영원성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마치 사라진 제국과 변화하는 물질세계의 허무함을 명상하며, 동시에 영원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전히 탐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프랑스 인상주의 미학이 빛, 순간성, 붓의 새로운 터치 기법을 개발하고, 산업혁명이후의 도시풍경과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담아냈다면, 98세대 풍경은 이와 함께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초월적 정신세계를 포함하고 있다.

8) 대표적인 예로, 98세대 화가로 간주되는 이그나시오 솔로아가(Ignacio Zuloaga)는 엘그레코의 풍경화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엘그레코 특유의 종말론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1898년 국가적 재앙과 스페인의 민족적 고뇌를 표현하였다.

참고문헌

- 김홍순(2010), 「19세기말 프랑스 인상주의 회화 속에 표현된 파리의 근대적 도시경관」,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大韓 建築學 會論文集 計劃系 第26卷 第7號), 7월, pp. 203-214.
- 홍석기(2010), 『인상주의: 모더니티의 정치사회학』, 생각의 나무.
- 가브리엘레 크레팔디(2009), 『영원한 빛, 움직이는 색채, 인상주의』, 하지은 옮김, 마로니에북스.
- 아느놀트 하우저(1974),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4』, 백낙청/염무웅 옮김, 창작과 비평사.
- Azorin[Martínez Ruíz, Jose](1897), “Paisajes,” *Bohemia*, Madrid: Vela Impresor, pp. 67-76.
- _____(1923), “El paisaje de España pintado por los españoles,” *Obras Completas*, Vol. 19, Madrid: Raggio, pp.9-83.
- _____(1973), *Castilla*, Barcelona: Textos Hispánicos Modernos.
- _____(1988), “El momento y la sensación,” *Madrid*, Madrid: El Avapiés, pp.173-177.
- _____(2000), *Diario de un enfermo*, Madrid: Biblioteca Nueva.
- Baroja, Pío(1920), *Camino de Perfección*, New York: Las Americas Publishing Co.
- Calvo Serraller, Francisco(1984), “In the light of Painting,” *Spanish Painters in Search of Light(1850-1950)*, Madrid: Programa Española de Acción Cultural en el Exterior. P.E.A.C.E, pp.23-27.
- De La Puente, Joaquín(1983), “Beruete, impresionista, rigor vidente, retina excepcional,” *Aureliano de Beruete y Moret 1845-1912*, Madrid: Exposición Organizada por la Obra Cultural de la Caja de Pensiones, pp.25-31.
- Giner de los Ríos, Francisco(1965), “Paisaje,” *Ensayos y Cartas*, Edición de homenaje en el cincuentenario de su muerte,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pp. 39-46.
- Lafuente Ferrari, Enrique(1983), “Aureliano de Beruete y Moret,” *Aureliano de Beruete y Moret 1845-1912*, Madrid: Exposición Organizada por la Obra Cultural de la Caja de Pensiones, pp. 9-10.
- Litvak, Lily(1991), *El Tiempo de los trenes: el paisaje español en el arte y la literatura del realismo (1849-1918)*, Barcelona: Serbal.

- Machado, Antonio(1989), *Campos de Castilla*, Ed. Geoffrey Ribbans, Madrid: Cátedra.
- Pilar Paloma, María del(1994), “El Greco: modernismo y 98,” *Literatura Española de Los Siglos XIX y XX*, Madrid: Editorial Castalia, pp. 275-286.
- Rubin, James H.(2008), *Impressionism and the Modern Landscap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ufts, Eleanor(1994), “The lure of impressionism in Spain and Latin America,” *World Impressionism: the International Movement, 1860-1920*, New York: Harry N. Abram, Inc., pp. 210-247.
- Valdés Fernández, Manuel(2004), “Darío de Regoyos y la pintura europea en la crisis de 1900,” *De Arte*, No 3, pp.165-186.
- Vila-Belda, Reyes(2003), “Paisajismo e impresionismo en Campos de Castilla, de Antonio Machado,” *Revista Canadiense de Estudios Hispánicos*, Vol. 28, No.1, pp. 281-295.
- (2006), “La visión institucionista del paisaje en Antonio Machado,” *Hoy es siempre todavía*. Curso Internacional sobre Antonio Machado, Sevilla: Renacimiento, pp.198-229.

정수현

덕성여자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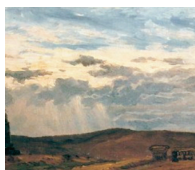
soohyunj@snu.ac.kr

논문투고일: 2021년 8월 1일

심사완료일: 2021년 8월 21일

게재확정일: 2021년 8월 24일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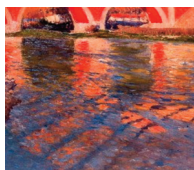
1. 하에스
<삐에드라 수도원의
십자가 (1872)>



2. 하에스
<부서지는 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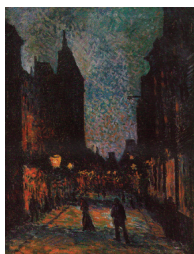
3. 베루에테
<그린델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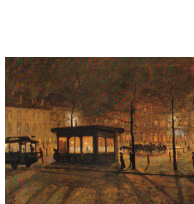
4. 베루에테
<강에 반사된
만사나레스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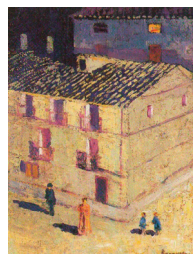
5. 레고요
<알메리아 해변
(1882)>



6. 레고요
<가스등 (1895)>



7. 레고요
<빛의 효과 (1881)>



8. 레고요
<카스티야의 전등
(1906)>



9. 모네
<생 라자르의 철도역
(1877)>



10. 레고요
<아레날 다리 (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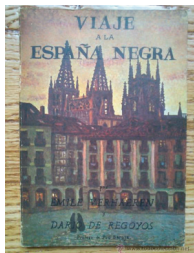
11. 레고요
<빌바오의 제철소
(1908)>



12. 레고요
<La puerta del sol
(1894)>



13. 레고요
<카스티야의
성 금요일 (1904)>



14. 레고요
<검은 스페인 (1898)>



15. 엘그레코
<톨레도 풍경
(1596-1600)>



16. 솔로아가
<세고비아(1912)>

Landscape and Impressionism in the Generation of 98

Soohyun Jung

Duksung Women's University

Jung, Soohyun(2021), "Landscape and Impressionism in the Generation of 98,"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2(2), 107-128.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the impressionist elements in Spanish landscape in the late 19th century. In the esthetic aspect, it celebrated a new genre of 'plein air paintings.' Instead of describing the object, it emphasizes the fact that the object's image changes according to the diverse effects of the Nature and observer's subjective perspective. On the other hand, in the socio-political aspect, the impressionist relativism provoked significant controversies against the political absolutism and the traditional Catholicism. At the same time, the new emphasis on the subjective way of looking at the Nature played an important role of enhancing the consciousness of oneself, individualism, and critical mind. This perceptual transition reflects a strong need of a modern man to put the old belief systems behind and to prepare for a more democratic, secular and modernized society. In this study, we will analyze 'first Spanish impressionist artists' who elaborated a new genre of outdoor landscape. They emphasized that an individual must develop the ability of observing the Nature, describing, in his or her own way, the nation's reality, and also developing the critical thought. We can also observe socio-political transitions between the tradition and modernization in Spain.

Key words Impressionism, Institución Libre de Enseñanza, Generation of 98, Light, Plein air painting